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앞장

익산시, 보건소 증·개축·오산보건지소 신축 등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중점 추진

6일 익산시보건소에 따르면 의료안 전망 확충과 함께 공공의료서비스 육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건강형평성 확보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익산보건소는 먼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38억5000만원을 투입해 보건소 증·개축과 오산보건지소 신축에 나선다.

또 37억원을 확보해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 응포보건지소, 장안보건

진료소를 신축할 방침이다.

익산보건소는 또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임신·출산 서비스에 행정력을 결집한다.

특히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 총사업비 16억90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을 위해 4개 감염병관리대책반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방역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아와 성인 예방접종 사업에 42억원을 투입해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구상이다.

익산보건소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가구 기초건강검진, 건강상담, 보건교육, 재활치료, 운동지도 등을 전개한다.

중풍과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상담

센터를 설치해 인지증진을 위한 작업·미술·운동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한의약 중풍·치매예방교실 운영은 물론 노년기 소변질환 개선을 위해 소변 한의약교실을 개설·운영한다.

김재광 보건소장은 "형유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드림스타트-은혜산부인과 '취약계층 임신부 지원' 후원협약 체결

위기가정 임신부 대상 정기 검진·자연 분만·제왕절개 수술 등 지원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은혜산부인과는 6일 취약계층 임신부를 위한 출산 지원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현재 취약계층 임신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분만방법, 출산용품 등 출산을 준비하도록 하는 임신부 건강관리 및 출산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은혜산부인과는 6일 취약계층 임신부를 위한 출산 지원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가정 내에서 출산준비가 어려운 위기가정 임신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지원하고, 자연 분만 제왕절개 수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은혜산부인과의 도움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한 성장 및 출산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에게 꾸준한 도움을 주신 은혜산부인과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은혜산부인과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10명의 요보호 임신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검진, 제왕절개 등의 분만비용(450만원 상당)과 건강상의 이

유 등으로 피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母)를 대상으로 수술비용(4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모현동, 착한가게 29호점 선정... 참여행렬 신호탄 발사

익산시 모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안병진 정기운)는 지역복지의 일원인 나눔 문화 실천에 참여한 원광빈점(대표 최연희)과 민들레플라워(대표 광중권)를 착한가게로 선정 6일 현판을 전달함으로써 새해 착한가게 참여 행렬 시작을 일렷다.

원광빈점과 민들레 플라워는 모현동에 위치한 음식점과 꽃가게로 모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내용을 홍보를 통해 알게 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에 동참했다.

이로써 모현동 착한가게는 2016년 맞춤형복지가 시작된 이래로 29호점을 맞이하게 됐다.

최연희 원광빈점 대표와 광중권 민들레플라워 대표는 한목소리로 "지속적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착한가게 캠페인을 알게 돼 동참하게 됐다"면서, "일

시적인 나눔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선 행을 베풀겠다"고 말했다.

안 민간위원장은 "현관 전달식에서 착한가게 동참을 해 준 양 대표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 이나마 희망을 건네주는 데 사용될 것"을 약속했다.

/익산=정양원기자

를 통해 알게 되어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에 동참했다.

이로써 모현동 착한가게는 2016년 맞춤형복지가 시작된 이래로 29호점을 맞이하게 됐다.

최연희 원광빈점 대표와 광중권 민들레플라워 대표는 한목소리로 "지속적으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착한가게 캠페인을 알게 돼 동참하게 됐다"면서, "일



군산시 진포문화예술원 콘서트 수익 상품기탁

군산시 진포문화예술원이 최근 콘서트 수익 물품 라면 327박스과 화장지 111묶음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진포문화예술원은 "함께하면 잘 풀려요"라는 재능기부 형태의 콘서트에서 공연입장료로 들어온 물품과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개인과 단체들로부터 기부 받은 상품들을 기탁하였다.

이날 기탁된 상품은 설 명절을 맞아 군산의 사회복지시설(단체)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진포문화예술원 주최로 군산 시민예술촌에서 국악·댄스·퓨전음악·비보이·탈춤·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 공연으로 진행돼 남녀노소 연령제한 없이 자유롭게 라면 1봉지, 화장지 1롤 이상을 입장료로 받아 콘서트를 즐기면서 기부도 참여하는 기부와 나눔의 축제장을 만들었다.

공연을 기획했던 박양기 군산시민예술촌장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예상보다 많은 상품을 나눌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추진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나눔의 기쁨을 전했다.

김정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콘서트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사랑, 봉사, 배려를 생생한 속에서 실천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미래인재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길"

군산시 옥구읍 이장협의회, 인재양성 장학금 전달

군산시 옥구읍 이장협의회(회장 박태근)는 6일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군산 자양중 3학년 학생 5명에게 총 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옥구읍 이장협의회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는 모범적이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각 30만원씩 5명에게 지급했다.

박태근 이장협의회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뜻깊은 일을 할 수 있고 고향의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

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길용 옥구읍장은 "공공 얼어붙은 겨울날 훈훈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이장협의회 이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장학금 전달이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옥구읍 이장협의회에서는 학생 7명에게 210만원을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장학사업을 매년 실천할 계획이다.

또한, 효사랑 한마음 잔치(5월), 주민 소통과 화합의 시간(12월) 등 끊임없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안전점검의 날 맞아 현장행정 펼쳐

인화동 남부시장서 안전의식 강화 캠페인활동 전개

익산시는 제268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오후 2시에 익산시 인화동 남부시장에서 익산시 부시장 익산시소장 박희,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췁전북에너지서비스, 익산시 안전관리 자문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의식 강화 캠페인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날 행사는 김철모 익산시 부시장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홍보와 특정관리시설인 남부시장 시설물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 안전기준 적합 여부, 안전규정 미비여부 등 건축 전기 소방, 가스 시설관리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남부시장은 2009년 예산 76억원

으로 전통시장 장육 재건축을, 2016년 50백만원의 예산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55개 65명의 상인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김철모 부시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은 민·관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전반의 안전수준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점검결과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형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이력관리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기자

어린이 행복돌봄길

풍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GUNSAN CITY